

미술자료 5만6천여점 맡아줄 곳 어디 없소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김달진(58) 관장이 요즘 시름에 빠졌다. ‘걸어다니는 미술사전’이라고 불리며 미술 자료 수집의 외길을 걸어 국내 최대의 미술 아카이브를 구축해 운영해온 그가 오도 가도 못할 처지가 된 탓이다. 서울 마포구 창전동에 있는 자료 박물관의 전세금을 대출해주었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자금 지원 기한이 끝나기 때문이다.

김 관장은 2010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금 8억2700만 원에 자체 부담금 1억4300만 원을 합쳐 9억7000만 원을 주고 이곳에 입주했다. 3개 층 141평에 박물관을 열어 주 5일 미술인을 대상으로 열람서비스를 해왔다. 단행본·화집 2만2000권, 정기간행물 335종 1만권에 미술학회지 1027권, 논문 670권, 팸플릿 2만3000점 등을 갖춰 논문을 쓰는 미술 전공자들과 전시를 준비



서울 마포구 창전동에 있는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에서 만난 김달진 관장은 “소장중인 문화예술자료 전체를 공적 기관에 기증하고 싶다”고 말했다.

**단행본·화집 등 국내최다 소장
김달진박물관 공공자금 못받아
보유액 3억으로 임차료 턱없이
“공적기관 나선다면 기증할 것”**

하는 국내외 큐레이터와 미술평론가들이 이곳을 이용하고 있다. 앞서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은 서울 종로구의 75평 작은 공간에서 운영하다가 예술위원회의 공공자금 지원을 받아 이곳으로 확장 이전했다.

하지만 이제 지원 자금이 회수되는 시점이 돌아와 박물관은 새 터전을 찾아야 한다. 김 관장이 현재 조달한 돈은 모두 합쳐 3억원 정도. 서울 시내에서 이 금액으로 새 공간을 마련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경기도 이전도 생각해봤지만 주 이용자인 미술 관계자들의 불편이 커져 사실상 기능을 제대로 하기 어려워진다.

김 관장은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미술에 빠져 미술 자료 수집을 시작했다. 1982년 국립현대미술관에 촉탁 임시직으로 들어가 15년 동안 미술자료실을 구축하며 자료 전문가가 됐다. 이후 가나아트센터 자료실장으로 6년 가까이 근무한 뒤 2001년 종로구 평창동에 김달진미술연구소를 차렸고, 2007년 종로구 통의동으로 옮겨 일반에 자료를 공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8년 연구소 부근에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을 열었다. 자료 공개를 시작한 이래 거의 1~2년마다 옮겨다니며 조금씩 자료박물관의 모습을 갖추었는데 이번에 가장 큰 난관을 맞은 것이다.

평생 미술 자료를 잔뜩 모은 가방을 들고 다닌 탓에 김 관장은 몇년 전부터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 2년 전 전신마비 위험이

있어 큰 수술을 하기도 했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을 짓눌러온 짐을 내려놓기로 했다. 자신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에 매달려온 일이었지만 건강 문제를 겪고 나니 “김달진 이름 석자가 더이상 브랜드가 아니라 족쇄가 되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한다.

“이제 문화예술 자료를 공적 기관에서 관리할 때가 되었어요. 제가 모아 소장중인 자료 전체를 공적 기관에 기증하고자 합니다. 다만 제 전문성을 인정해 앞으로 한 20년은 자료의 보존, 연구, 활용에 책임과 권한을 보장해주면 좋겠어요.”

글·사진 임종업 기자 blitz@hani.co.kr